목 차

- 시작하며
- 질문 1.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 질문 2.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 질문 3.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 질문 4. 하나님은 왜 삼위일체이신가?
- 질문 5. 성령은 누구신가?
- 질문 6. 하나님은 무엇을 작정하셨는가?
- 질문 7.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는가?
- 질문 8.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
- 나가며

시작하며 —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질문들

제 1 강에서 우리는 성경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기록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책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성경론이 조직신학의 토대라면, 신론은 그 위에 세워지는 첫 번째 기둥입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해도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제 1 강에서 살펴본 번영신학의 문제도 결국 신론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도구로 이해하는 순간, 신앙 전체가 뒤틀립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바른 신학의 출발점이고 바른 신앙의 토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증명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신 분으로 전제됩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논증의 대상이 아니라 만남의 대상으로**, 증명의 결론이 아니라 신뢰와 순종과 예배의 대상으로 제시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하나님은 바로 그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질문들을 읽어보려 합니다. 읽으시면서 "아, 나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에 표시해 두십시오.

-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
-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는가?**
-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신가?**
- **삼위일체가 무엇인가? 어떻게 3 이 1 이 될 수 있는가?**
-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다른 분이신가, 아니면 같은 분의 다른 모습인가?**
- **성령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에너지인가?**
-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선하신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모순 아닌가?**
-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는가? 그렇다면 나의 선택과 책임은 무엇인가?**
-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면 악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악의 원인인가?**
-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진화론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창조과학은 믿을 만한가?**
-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손을 떼셨는가, 아니면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
- **하나님은 나의 작은 삶에도 관심이 있으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어떠십니까? 한두 개는 마음에 걸리는 질문이 있으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성경을 많이 아셔도, 이 질문들은 우리 마음 어딘가에 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의 표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질문들을 함께 다루려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대상을 향하고,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2 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서 시작하여, 삼위일체와 성령론을 거쳐,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와 섭리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실 때, 마르틴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의 이 말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다."

질문 1.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 선언으로 시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존재하십니까?

이 질문은 어쩌면 신앙인에게 낯선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미 믿고 있는데 왜 이것을 묻는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 마음 어딘가에서 이 질문이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이 세상의 불의와 고통을 볼 때 —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이것은 신앙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답: 증명이 아니라 선언

성경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가요?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증명이 아니라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하나님은 이미 계신 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정직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한하신 분이라면, 유한한 인간의 논리로 그분의 존재를 완전히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 14:1)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지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지적 결론이 아니라 삶의 선택으로 봅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논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여러 논증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논증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주요한 논증들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주론적 논증(Cosmological Argument)**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 우주가 존재한다면, 그 우주를 존재하게 한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원인의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슬이 무한히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어딘가에 스스로 존재하는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최초의 원인, 다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논증은 13 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가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둘째는 **목적론적 논증(Teleological Argument)**입니다. 이 세상은 놀라운 질서와 정밀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정확한 거리에 있지 않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조금만 달라도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DNA 하나에 담긴 정보의 정밀함은 인간이 만든 어떤 설계보다 복잡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보기에는 그 정밀함이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설계가 있다면 설계자가 있습니다. 시계가 있다면 시계 만든 사람이 있듯이, 이 우주가 있다면 우주를 설계하신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시 19:1-4)

셋째는 **도덕론적 논증(Moral Argument)**입니다. 모든 인간은 문화와 시대를 막론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살인이 잘못이라는 것, 약자를 억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 이것은 특정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감각입니다. 이 보편적인 도덕 감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도덕의 절대적 기준이 존재한다면, 그 기준의 근거가 되는 절대자가 있어야 합니다. 도덕이 단순히 사회적 합의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절대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단순한 사회적 합의를 넘어서는 도덕적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 의무감의 궁극적 근거가 하나님이십니다.

넷째는 **존재론적 논증(Ontological Argument)**입니다. 11 세기 신학자 안셀무스(Anselm of Canterbury)가 제시한 논증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생각 속에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가 더 위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일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실제로 존재하셔야 합니다. 이 논증은 다소 추상적이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개념적으로도 필연적임을 보여주려는 시도입니다.

이 논증들은 각각 강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논증도 하나님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논증들이 함께 가리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감각

논증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칼빈(John Calvin)은 모든 인간 안에 '**신성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신을 향한 감각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의 씨앗이고, 인간 안에 남아 있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롬 1:20)

세상의 모든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인간은 신을 찾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도록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면의 감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감각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알게 해주지만, 그 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어떻게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계시의 기록이 **성경**이고, 그 계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은 증명의 결과가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순수한 지적 논증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실 때, 즉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논증은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열어줄 수 있지만, 문을 통과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성령의 조명,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살아있는 증언 위에 서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앎으로 이어집니다**. 믿을 때 알게 되고, 알수록 더 깊이 믿게 됩니다.

안셀무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믿음이 앎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먼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질문 2.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 참되게, 그러나 완전히는 아니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면 신앙이 무의미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됩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 명제

신학자 웨인 그루뎀(Wayne Grudem)은 이 질문에 대해 세 가지 명제로 답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합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깊이는 우리의 이해를 언제나 넘어섭니다. 아무리 신학을 깊이 공부해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언제나 부분적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롬 11:33-34)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전 13:12)

지금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종말에, 주님과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향해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아가는 중입니다.

둘째,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참으로 그분에 대한 것입니다. 부분적이지만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짜 지식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를 참되게 아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진짜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으니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습니다. 부분적 지식도 참된 지식입니다.

셋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충분히 알려줍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지식을 성경은 충분히 제공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두 가지 차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본성(Nature)**과 **하나님의 속성(Attributes)**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 즉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이신가를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몸을 가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신학자 헨리 오튼 와일리(Henry Orton Wiley)는 영이신 하나님의 본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은 **빛**이시며, 영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여야 합니다. 천사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천사는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본성이 완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여기서 **거룩**은 도덕적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천사도, 인간도, 우주 만물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존재론적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격 저편에 계신 분,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본성으로서의 거룩입니다.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가 거룩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위치 및 관계**"라고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스랍들의 노래를 들었을 때, 그것이 바로 이 본성으로서의 거룩의 선언이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 6:3)

세 번 반복되는 거룩의 선언은 히브리어 최상급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 전체와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가 그 앞에서 즉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사 6:5)**"라고 고백한 것은 이 구별됨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의 유한함과 죄가 동시에 드러납니다.

또한 영국의 신학자 피터 테일러 포사이스(P. T. Forsyth)는 이 거룩과 사랑의 관계를 깊이 통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두 개의 분리된 속성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Holy Love)**"이라는 하나의 본성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거룩은 사랑하는 거룩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규정하며 분리될 수 없습니다. 포사이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 심판도 은혜도, 창조도 구원도, 모두 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본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른 종교의 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능력이 많은 신이 아니십니다. 피조물과 존재론적으로 구별되신 거룩하신 영이시며, 그 거룩하심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영은 인격을 가지신 영이고, 무한하신 영이며, 유일하신 영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지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의지를 갖고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노하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이심을 보여줍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가능한 이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어떤 제한도 없으시고, 어떤 부족함도 없으시며,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공간적으로는 편재성으로, 시간적으로는 영원성으로, 능력에 있어서는 전능성으로, 지식에 있어서는 전지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 6:4)

하나님의 속성과 그 분류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특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할 때 —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신학자 조용수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별적 속성은 언제나 다른 속성을 전제하고, 조화를 이루는 유기적 특성을 갖는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서로 분리된 정보의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자비와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의 속성이 하나님의 전부를 드러내며, 동시에 다른 속성과 조화를 이룹니다. 모든 속성이 함께 어우러져 한 분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분류하는 방법은 신학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일반적인 분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의 구분입니다.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어느 정도 공유하시는 속성들입니다. 사랑, 지식, 의지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질적으로 다르지만,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들입니다. 자존성, 전능성, 전지성, 편재성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피조물에게는 없는,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 속성과 상대적 속성의 구분입니다. **절대적 속성은** 피조물과의 관계와 무관하게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속성들입니다. 자존성, 불변성, 영원성 같은 것들입니다. **상대적**

속성은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속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같은 것들은 피조물을 향한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자연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의 구분입니다. **자연적 속성**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와 관련된 속성들입니다. 자존성, 완전성, 영원성, 편재성, 불변성, 통일성, 전능성, 전지성이 여기에 속합니다. **도덕적 속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와 관련된 속성들입니다. 거룩, 사랑, 은혜, 자비, 신실, 의, 선, 아름다움, 영광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분류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속성이 여러 분류에 동시에 속할 수 있습니다. 분류의 목적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목적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목적은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고, 더 온전히 순종하고, 더 진실하게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런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렘 9:23-24)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랑이고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함께 이 신학산책을 걷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앎이 우리의 삶과 예배로 이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질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속성을 단순한 신학 정보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질문 3.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 속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다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신학 용어들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속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그 창문들을 하나씩 열어가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선하시며,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속성을 분류하는 세 가지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자연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의 구분을 따라 하나님의 속성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분류를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와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적 속성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보여주고, 도덕적 속성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두 축을 함께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한 신학 정보가 아니라 신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인격적 하나님으로 알게 됩니다.

자연적 속성

자존성 (Aseity)

하나님의 자존성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생명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자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다른 무엇으로부터 존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 3:14)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I AM WHO I AM).'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YHWH)'의 의미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존재 자체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요 8:58).**"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존재하기 시작한 분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영원토록 스스로 계실 것입니다.

자존성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해야만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우리의 헌신이 없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을 나누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유로운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름다움입니다.

완전성 (Perfection)

하나님의 완전성은 하나님에게 어떤 부족함도 결핍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더 나아질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오어(James Orr)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적, 질적 어떠한 제한이나 결핍도 없으시며, 무한히 잠재적이시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도덕적 목표를 향해 스스로 나아가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함은 우리가 점점 도달해 가야 할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전 1:30)

지혜도, 의로움도, 거룩함도, 구원도 —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으로서의 거룩, 즉 **영화(榮化)**가 이미 오늘 우리의 삶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 장 30 절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화를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선언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 영화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성도들을 가리켜 **하기오이(ἅγιοι)**, 즉 "이미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해져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는 진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5)

열매는 가지가 노력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때, 그분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머묾 자체도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 장 19 절이 말하는 것처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열매이며, 그 능력은 전적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완전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영원성 (Eternity)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는 흘러가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며, 시간에 묶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동일하게 현존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 90:2)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벧후 3:8)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시간적 영원**(timeless eternal)으로, 하나님이 시간과 전혀 무관하게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간적 영원**(everlasting)으로, 하나님이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시간의 끝 이후까지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우리의 삶과 분리된 저 먼 곳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이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C. S. 루이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재는 시간이 영원과 만나는 지점이다**." 오늘이라는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무한한 영원과 유한한 시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칼 바르트(Karl Barth)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이 단순히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시간을 영원 안으로 편입시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은 시간이 없는 상태(timelessness)가 아니라 **충만한 시간(fulfilled time)**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유한한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 안으로 들어가

충만해집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안에 안겨 있습니다.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표현합니다. 그는 영원을 단순히 미래의 끝에 있는 어떤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미래가 지금 이미 역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not yet), 그 완성이 지금 이미 우리의 삶 안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already). 몰트만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저 먼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로 찾아오는 능동적인 현실이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오늘은 단순히 지나가는 하루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한한 시간이 그분의 영원 안에 편입되어 충만해지는 오늘,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오늘입니다. 바울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선언할 때(롬 8:18), 그는 이미 영원이 오늘 안으로 들어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선언입니다. 영원을 아는 자만이 오늘을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편재성 (Omnipresence)

하나님의 편재성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어느 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모든 곳에 완전히 현존하십니다.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찾는 것보다 계시지 않는 곳을 찾는 것이 더욱 힘들다."

안셀무스(Anselm of Canterbury)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장소와 시간에 계신다는 것이 아니고,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편재성이 범신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시며, 피조물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안에 계시지만, 피조물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시편 139 편은 편재성을 가장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 139:7-10)

편재성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함께 계십니다. 광야에서도, 감옥에서도,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느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까이 계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것이 편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위로입니다.

불변성 (Immutability)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성품, 목적,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웨인 그루뎀(Wayne Grudem)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기를 그만두거나 하나님 됨이 축소되는 일이 없다**." 조용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본성과 활동, 계획과 약속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 3:6)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약 1:17)

하나님의 불변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마음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의 중보기도 후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경우(출 32:14)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성과 모순되지 않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본성이나 목적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에 따라 행동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 보이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지, 하나님 자신이 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성도에게 흔들리지 않는 힘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감정이 변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상황이 바뀝니다. 어제의 결심이 오늘 무너지기도 하고, 뜨거웠던 마음이 식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변할 때도, 우리가 흔들릴 때도, 심지어 우리가 등을 돌릴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변함없는 신실함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위에 서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딤후 2:13). 이 불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통일성/단순성 (Unity)

하나님의 통일성에 대해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단일성), 결코 부분들로 나누어지지 않으신다(단순성)."

단일성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유일신론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십니다. 이것은 다음 질문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단순성은 하나님이 부분들로 이루어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분리되지 않고 함께 하나님 전체를 드러냅니다. 조용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속성이 하나님의 전부를 드러내며, 동시에 다른 속성과 조화를 이룬다는 말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것은 거룩하심과 분리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그것은 자비와 분리된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서로를 전제하고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죄를 묵과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결코 자비를 배제하는 의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함께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전능성 (Omnipotence)

하나님의 전능성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입니다. 웨인 그루뎀(Wayne Grudem)은 이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하신 본성과 일치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정의합니다. 전능하심은 제한 없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온전히 발휘되는 능력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 18:14)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 17:1)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성은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에 반하는 일은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며, 악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의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표현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완전한 진실하심의 결과입니다.

마르틴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본성의 다른 모든 속성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시행된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우리에게 무한한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상황을 넘어서십니다. 아브라함이 늙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홍해가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어도 하나님은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깊고 찬란하게 드러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흔히 전능하심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으로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전능하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 장 16 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롬 1:16)

하나님의 능력(δύναμις, 뒤나미스)이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자리는 바로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 장 18 절도 같은 것을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18)

성경이 말하는 전능하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전능하심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원수였던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는 능력, 시작하신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 장에서 이 전능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5, 38-39)

이것이 전능하심입니다.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 예정에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신앙은 그래서 번영신학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번영신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원함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능하심은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지성 (Omniscience)

하나님의 전지성은 하나님이 자신과 모든 것을 완전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며, 실제로 일어나는 일뿐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에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고전 2:11)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일 1:5)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마 6:8)

히브리인들에게 '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습득이 아니었습니다.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함께 담긴 말이었습니다. 조용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란 최선의 목적을 찾고, 그 목적에 이르는 최선의 수단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지성은 단순히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넘어서, 그 앎에서 나오는 완전한 지혜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줍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숨기려는 생각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가 말하지 못한 기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시편 139 편에서 이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 139:1-4)

도덕적 속성

이제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적 속성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를 보여준다면, 도덕적 속성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거룩 (Holiness)

앞서 하나님의 본성을 살펴보면서 거룩의 첫 번째 의미, 즉 피조물과의 구별됨을 다루었습니다. 여기 도덕적 속성에서 다루는 거룩은 그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함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떤 죄도, 어떤 악도, 어떤 불의도 없습니다. 헨리 오튼

와일리(Henry Orton Wiley)는 거룩을 "도덕적 우수성의 완전함이며, 하나님 자신의 행동 원리이고, 피조물을 위한 표준"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거룩은 인간의 도덕 기준과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도덕은 사회적 합의나 이성적 판단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적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서 나오며, 그 자체가 모든 선과 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 위에 있는 기준이지, 우리의 도덕에서 추론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경험한 것이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자 그는 즉시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사 6:5)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불붙은 숯으로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 11:45)

사랑 (Love)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일 4:8)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loving)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is love)라고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즉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앞서 본성을 다루면서 포사이스의 "거룩한 사랑"을 언급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전지하심도, 공의도, 심지어 심판도 — 이 모든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도덕적 속성에서 사랑을 다시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성으로서의 사랑이 피조물을 향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는 **사랑**을 "**하나님의 영원한 자기 전달의 속성**"이라고 정의합니다. 김진혁은 사랑을 "자신을 상대에게 주시는 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창조를 통해 피조물에게로 흘러나왔고, 인류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포사이스가 말한 것처럼, 이 둘은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하나됨이 가장 온전하게 드러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이 —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은혜 (Grace)

은혜를 이해하려면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야 합니다. 구약에서 은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헨(חֵן, chen)**입니다. '호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선함'을 의미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아무런 의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창 6:8)**"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헤세드(חֶסֶד, hesed)**입니다. 구약에서 약 250 회 사용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은혜'나 '자비'로만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사랑, 신실함, 언약적 충성, 자비가 하나로 묶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신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 33:19)

헤세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언약을 맺으신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는 은혜를 "본성상 정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공로에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과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마르틴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3:23-24)

은혜는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공로와 수행을 통해 신의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신앙은 의무에서 감사로 바뀝니다.

자비 (Mercy)

자비의 히브리어 **라함(רָחַם, racham)**은 매우 놀라운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근이 **레헴(רֶחֶם)**, 즉 '**어머니의 자궁(womb)**'입니다. 자비는 어머니가 자신의 태에서 난 자녀를 향해 느끼는 깊은 본능적 긍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처럼 깊고 본능적이며 끊을 수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 49:15)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는 자비를 "공과에 관계없이 곤궁과 비탄에 빠진 자들에게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과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김진혁은 자비를 "고통 속에 있는 이를 건지시며, 죄인을 인내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 어원적으로는 은혜와 자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는 죄책을 다룹니다. 죄인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비는 고통을 다룹니다. 비참한 상황에 처한 자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둘, 은혜와 자비는 겹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 103:8)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6)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절망할 때 — 하나님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자비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를 품으시고,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라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신실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과 약속에 반드시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는 신실을 "언약을 생각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심"이라고 정의합니다. 마르틴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 23:19)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전 5:24)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 신실하심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후 1:20)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단순히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우리 믿음의 근거이지만, 그 중에서도 신실하심은 특별히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허공을 향한 도약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 위에,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수많은 성도들의 증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시편 기자들이 그토록 풍성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차갑고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가 기쁨이 됩니다. 그 기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자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고, 그 믿음이 기도로 이어지며,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경험이 다시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순환입니다.

의 (Righteousness / Justice)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려면 먼저 히브리어 어근 **צָדַק(tsadaq)**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곧다, 바르게 서다(to be straight, to be in right standing)'입니다. 여기서 **tsadaq** 는 법적·도덕적으로 옳다는 뜻이고, **tsedeq** 는 공동체 안에서의 형평과 올바름이며, **tsedaqah** 는 언약 관계 안에서의 바른 자리와 신실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세 단어가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단순한 도덕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義) 자체이시다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는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을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완전함"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의로운 분이 아니라, 의(義)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외부 기준에 비추어 의롭다고 판단받는 분이 아니라, 모든 옳음의 기준 자체이십니다. 마틴 로이드-존스(Martyn Lloyd-Jones)는 이를 입법적 의(legislative righteousness)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의의 법칙을 제정하시는 분인 동시에, 그 법칙을 완전히 준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입법자이자 완전한 준수자이심이 동시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선언은 곧 "그분 자신이 옳음의 기준이 되신다"는 의미를 이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의(義)는 관계 안에서 드러난다

서양 철학에서 **의**는 추상적인 도덕 기준에 대한 부합 여부를 가리키지만, 히브리어 tsedaqah 는 언약 관계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창세기 15:6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바로 이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도덕적 기준을 충족해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선 자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의(義)는 처음부터 관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또한 신실하심(faithfulness)으로 드러납니다. tsedaqah 와 hesed(헤세드, 언약적 사랑)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함께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시 36:5–6; 시 85:10–11). 하나님의 의는 관계 밖에서 작동하는 냉정한 법 집행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신 분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신실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의(義)를 위해 일하심이 신실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의(義) 자체이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 곧 우리의 의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30 은 이를 명확히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의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 자체이신 분과의 연합으로부터 옵니다.

십자가 — 하나님의 의의 완전한 증명

하나님의 의가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3:25–26 에서 바울은 이 역설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죄를 그냥 덮어두심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심판을 완전히 집행하심으로써입니다. 죄에 대한 의로운 심판과 죄인에 대한 사랑이 동시에 성립하는 것은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피터 테일러 포사이스(P.T. Forsyth)는 십자가를 "**거룩한 사랑(Holy Love)이 스스로를 집행한 사건**"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멸하는 방향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심판을 짊어지는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향한 의임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를 정죄하는 의가 아니라 나를 향한 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에 항복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의 자체이신 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곧 우리의 의가 됩니다(고후 5:21).

성도에게 하나님의 의가 갖는 의미

하나님의 의는 성도에게 두 방향으로 완전히 현실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칭의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의 자체이신 분과의 관계

맺음으로부터 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고후 5:21). 또한 **삶의 고통과 불의 앞에서 신뢰하는 근거**입니다. 하박국은 "**왜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받는가**"라고 하나님께 직접 항의합니다(합 1:2–4). 이 물음 자체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기에 불의한 현실을 그냥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즉각적인 해명 대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합 2:4)고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은 그 의미를 알았지요. 그래서 의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그 하나님의 의로 살지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합 3:17–18).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오늘 이미 찬송을 부릅니다. 역사의 끝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하나가 지금 이 순간의 기쁨과 찬송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는 성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그 앞에 섭니다. 의 자체이신 분과 관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의이고 성도의 안식입니다.

선 (Goodness)

하나님의 선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창세기 1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실 때, 그 단어가 히브리어 **토브(tov, טוֹב)**입니다. 토브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는, 생명을 지탱하고 아름다우며 기능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토브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선의 기준이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선이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는 이를 "**하나님은 선하심 없이 선하시다**(God is good without quality)"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선함이라는 속성을 외부에서 획득하신 분이 아니라,

선 자체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더욱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함에 참여함으로써 선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 의미에서 선하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선하심은 동일합니다. 시편 119:68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에서 '주는 선하시다'는 선언이 '선을 행하신다'보다 먼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선하심이 먼저이고, 선행은 그 결과입니다.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는 하나님의 선을 "**자신을 피조물에게 나누어 주시려는 완전함**"으로 정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이 흘러넘쳐 피조물에게 닿는다는 의미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것을 참여(participation)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피조물의 선함은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 참여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 장의 토브 선언은 단순히 창조물의 품질 평가가 아니라, 선 자체이신 하나님의 본성이 창조 안에 반영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시편 100:5 은 이 흐름을 아름답게 요약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선이신 하나님의 본성은 언약적 사랑인 인자하심(헤세드)으로 드러나고, 그 사랑은 한 세대에 그치지 않고 대대로 신실하게 이어집니다.

칼 바르트(Karl Barth)는 이 흐름을 구원 역사 안에서 조명합니다. 하나님의 선은 추상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죄인을 향해 구체적으로 움직이시는 선입니다. 요한복음 10: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선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그 선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선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12 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는 곳은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 한가운데입니다. 로마서 5:8 은 이를 명확히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은 우리의 죄악조차 선으로 바꾸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창 45:5). 로마서 8:28 은 이것을 원리로 선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에는 고통도, 실패도, 죄의 결과도 포함됩니다.

시편 34:8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초대는 하나님의 선을 관념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선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쫓아오신다는 것을 아는 자는(시 23: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악과 고통이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이신 하나님이 그 상황 안에 계시며 우리의 죄악과 고통조차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성도의 진정한 위로와 버팀이 됩니다.

아름다움 (Beauty)

갓난아기의 웃음, 감동적인 이야기, 자연의 장엄함 앞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경험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유비(analogy)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비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려면 다른 눈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야페(yapheh, יְפֶה)**의 어근은 '**밝게 빛나다, 광채를 발하다(to be bright, to shine forth)**'입니다. 아름다움은 빛이 발산되는 것, 즉 생명이 충만하게 넘쳐흐르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생명의 부재와 결핍은 추함으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그분의 생명이 온전히 충만한 상태, 그 생명이 빛처럼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시편 8:1 은 이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름다우심을 보는 눈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이 **참된 신앙 경험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성경이 거듭난 자들의 앎을 일종의 봄(seeing)으로 묘사한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요한복음 9:39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성령이 눈을 여시기 전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없습니다. 악마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은 보지 못합니다. 에드워즈는 성령을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아름다우심을 인식하시는 분(The Holy Spirit is God's own perception of His beauty)"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인식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눈이 뜨일 때 — 희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눈이 뜨이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아름다우심이 눈이 열리자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는『고백록』에서 이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늦게야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오래되고 너무나 새로우신 아름다우심이여**(Late have I loved you, O Beauty ever ancient, ever new)."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Hans Urs von Balthasar)는 아름다우심을 잃어버린 신학은 진리와 선함도 결국 강요로 전락한다고 경고합니다. 아름다우심이 먼저 우리를 끌어당길 때, 진리와 선함은 강요가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여집니다. 에드워즈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의무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우심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He does not drive us by duty, but draws us by beauty)."

하나님의 의와 선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았을 때, 터져 나오는 것은 논리적 수긍이 아니라 환호이고 찬양입니다. 에드워즈의 표현처럼, 참된 종교적 경험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한 번 엿보고 그것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성도에게 주는 희열입니다. 이 희열을 경험한 자는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됩니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시 27: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평화 (Peace)

히브리어 **샬롬(shalom, שָׁלוֹם)**의 어근 **샬람(shalam)**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건강하다(to be complete, whole, sound)**'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샬롬은 단순히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생명이 온전히 기능하는 상태입니다.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온전함의 현존입니다. 이 어원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의 평화 속성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샬롬 자체이십니다. 사사기 6:24 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후 쌓은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יְהוָה שָׁלוֹם, The LORD is Peace)**인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평화이십니다.

질서로서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은 질서와 깊이 연결됩니다. 질서가 있기 때문에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의 핵심은 관계의 바른 자리잡기입니다. 창조주가 창조주의 자리에,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에 바르게 있을 때 샬롬이 성립합니다. 코넬리우스 플란팅가(Cornelius Plantinga)는 샬롬을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정의와 충만함과 기쁨 안에서 함께 엮이는 것, 사물이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the way things ought to be)"이라고 정의합니다.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는 하나님의 평화 속성을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조화와 질서의 상태, 어떤 분열이나 대립도 없는 하나님 자신의 완전한 내적 통일성"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떤 긴장도, 모순도, 갈등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 의와 사랑, 거룩과 자비가 완전한 조화 안에 있습니다. 이 내적 온전함이 하나님의 평화 속성의 본질입니다.

관계적 평화 — 샬롬의 파괴와 회복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 안에만 머물지 않고 피조물을 향해 흘러나옵니다.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샬롬을 "**피조물이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온전히 꽃피어나는 것**(the flourishing wholeness of creation into the purposes of God)"이라고 정의합니다. 창세기 1-2 장의 창조 세계는 이 샬롬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모두 제자리에서 바르게(완전함의 개념이 아닌) 기능하는 상태였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원형적**

샬롬(Protological Shalom)'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창세기 3 장의 타락은 이 샬롬의 전면적 파괴입니다. 모든 관계가 제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사야 48:22 는 그 결과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없이 얻는 평화는 샬롬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샬롬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4:10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샬롬의 회복은 이사야 53:5 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샬롬을 위한 징계가 그리스도 위에 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파괴된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샬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게 되는 이 샬롬을 신학적으로 '**종말론적 샬롬(Eschatological Shalom)**'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14 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는 선언은 예수님이 평화를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화평 자체이시다는 선언입니다. 이사야 32:17 은 이 흐름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의(義)가 회복될 때 샬롬이 흘러나옵니다. 의와 평화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갖는 의미

하나님의 샬롬 속성은 성도에게 두 가지 방향으로 현실적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성도의 평화는 상황의 평온함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27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평화는 문제가 없을 때 주어지지만, 그리스도의 샬롬은 문제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관계에서 옵니다. 빌립보서 4:7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또한 **샬롬은 예배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바르게 설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바로 될 때, 그 온전한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샬롬의 완성된 표현이 예배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그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과 경배입니다.

영광 (Glory)

히브리어 **카보드(kavod, כָּבוֹד)**의 어근 **카베드(kaved)**는 '**무겁다(heavy)**'는 뜻입니다. 영광은 가볍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묵직하게 실재하는 것, 압도적인 무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34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에서 그 영광이 너무도 실재하고 충만하여 모세조차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카보드입니다. 신약의 헬라어 **독사(doxa, δόξα)**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찬란함, 광채, 하나님의 자기 나타내심**(the self-manifestation of God)'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광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실재로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시다

이사야 48:11 에서 하나님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이 영광을 소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광 자체이심을 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는 하나님의 영광을 신학 역사상 가장 깊이 다룬 인물입니다. 그의 저서『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The End for Which God Created the World)』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 이는 자아도취가 아니다. 하나님이 무한히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가치를 드러내고 보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추구하시는 것은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드러날 때 우주는 진실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우주는 거짓 안에 있게 됩니다.

존 파이퍼(John Piper)는 에드워즈를 따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랑의 가장 깊은 형태이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존하시는 것이 곧 당신에 대한**

사랑이다." 하나님은 영광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드러날 때, 피조물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게 됩니다.

영광의 드러남 — 창조와 구속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 안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시편 19: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사야 6:3 에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외칩니다. 온 땅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영광의 가장 완전한 드러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역설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희생 안에서, 위엄이 아니라 낮아짐 안에서, 생명이 아니라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갖는 의미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부족함이 없으심에도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영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4–6 은 이 목적을 선언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입양하신 목적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드워즈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그 영광 안으로 우리를 참여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영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 안에 초대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골로새서 1:27 은 이 참여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영광은 미래에 얻을 무언가가 아니라, 지금 이미 안에 계신 그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8:30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과거형 선언이 이것을 확증합니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스러운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영원히 만족하도록 당신을 지으셨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무한한 특권이다."

그러므로 성도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 안으로 이끄시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며, 그 영광 안에서 우리 존재가 비로소 완전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성도에게 무한한 영광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 속성들은 단순한 신학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선언이며, 동시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았을 때 찬송이 터져 나왔고,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삼았으며, 바울이 하나님의 깊이를 묵상하다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롬 11:33)라는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흘러갑니다.

마르틴 로이드-존스(Martyn Lloyd-Jon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공부가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며 함께 계신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삶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오늘 가장 새롭게 다가온 것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의 속성이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 의미가 나의 기도와 예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삼았습니다(시 27:4).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그 소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질문 4. 하나님은 왜 삼위일체이신가?

— 사랑이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하고 신비로운 교리 앞에 섰습니다. **삼위일체(The Trinity)**입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이기도 합니다.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그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삼위일체를 처음 접하면 누구나 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3 이 1 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당연합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 든다면 당신은 실성할 것이다. 부인하려 든다면 실족할 것이다."

설명하려 해도 안 되고, 부인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부인할 수도 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해하기 위해 씨름하되, 그 신비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위일체가 성경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개념을 가리키는 용어의 가장 오래된 흔적은 170 년경 안디옥의 테오필루스(Theophilus of Antioch)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지칭하면서 사용한 그리스어 **트리아스**(τριάς)입니다. 이후 2 세기 말 신학자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 약 160-225 년)가 라틴어 **트리니타스(trinitas)**로 이 개념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트리니타스는 '셋의 상태, 삼중성(tripleness)'을 의미하며, 그는

하나님을 '우나 숩스탄티아, 트레스 페르소나에(una substantia, tres personae)' — 즉 "한 본질, 세 위격"으로 표현하여 삼위일체 신학의 언어적 토대를 놓았습니다. 이후 신학자들은 이 진리를 the Trinity = tri-unity 또는 three-in-oneness, 즉 '셋이면서 하나'로 표현해 왔습니다.

삼위일체(三位一體)를 한자와 영어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삼위(三位)**는 '세 위격'이며 영어로는 3 persons, **일체(一體)**는 '한 본질'이며 영어로는 1 essence 입니다. 여기서 **페르수나에**(personae)(위격)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 연극에서 배우가 쓰는 가면(mask)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단어를 신학 용어로 가져와 삼위의 실제적 구별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고, 이것이 후대에 영어 person(인격)으로 발전하여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삼위일체는 '3 + 1'이 아닙니다. 세 위격(3 persons), 한 본질(1 essence) —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직접 나오지 않지만, 삼위일체의 실체,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구별되는 위격으로서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는 성경 전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구약에서부터 삼위일체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 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 1:26-27)

"우리"라는 복수형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수형이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복수적 다양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단일한 통일성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언어적 사실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엘로힘(אֱלֹהִים)**은 복수형 어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고대근동 세계에서 단일 신격에도 복수형을 사용하던 **장엄복수(pluralis majestatis)** 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가릿 문헌에서도 단일 신 엘(El)을 복수형으로 지칭한 용례가 발견됩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도 엘로힘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단수 동사와 함께 쓰입니다(창 1:1,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따라서 엘로힘의 복수형 하나만으로 삼위일체를 직접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삼위일체의 가능성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목할 것은, 철저한 유일신 신앙을 가진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단수 개념만으로는 그 충만하심을 담을 수 없다는 언어적 직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1:26 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표현이 바로 그 직관의 가장 선명한 예입니다. 엘로힘은 삼위일체의 증명이 아니라, 신약에서 완전히 계시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언어적 패턴입니다.

이사야 6 장 8 절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사 6:8)

"내가"라는 단수와 **"우리를 위하여"**라는 복수가 한 문장 안에 함께 사용됩니다. 이 표현도 장엄복수나 천상회의로 설명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계시 빛 안에서 볼 때, 이 단수와 복수의 공존은 한 분 하나님 안에 복수적 위격이 있음을 가리키는 패턴으로 읽힙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존재 안에 복수성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신약에서는 삼위일체가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각각의 위격으로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 3:16-17)

여기서 성자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은 비둘기 같이 임하시며, **성부**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립니다. 세 위격이 동시에, 각각 다른 위격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성부로, 때로는 성자로, 때로는 성령으로 나타나신다는 양태론이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양태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침례 장면이 세 위격의 구별을 보여준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대위임령은 그 세 위격이 하나의 이름으로 묶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마 28:19)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에서 "이름"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도 단수 **오노마(ὄνομα)**가 사용됩니다. 세 위격이 계시지만 그 이름은 하나입니다. 또한 성부(τοῦ πατρός), 성자(τοῦ υἱοῦ), 성령(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앞에 각각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 위격이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각각 고유하고 구별되는 인격적 실재임을 보여줍니다. 세 분은 구별되시되 하나의 이름 안에 묶이십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이심은 어떤 '하나이심'입니까? 이미 구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신명기 6:4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에서 '**유일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하드(אֶחָד)**는 단순한 수적 단일성이 아닙니다. 창세기 2:24 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에하드)**'이 된다고 할 때, 창세기 1:5 에서 저녁과 아침이 **'하루(에하드)'**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여럿이 완전한 연합을 이룬 하나됨을 표현합니다. 만약 모세가 절대적 단일성을 표현하려 했다면 **야히드(יָחִיד)** — 독자(獨子), 오직 하나뿐인 — 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에하드(אֶחָד)**는 하나님의 하나이심 안에 풍성한 내적 교제가 있음을 담고 있습니다.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성자의 신성**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히 1:5)

같은 표현이 히브리서 5:5 에도 반복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두 본문은 시편 2:7 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낳았다"**는 표현은 창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얄라드(יָלַד)'**는 **존재의 기원이 아니라 관계의 선언**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본성을 공유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인간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인간 본성을 공유하듯이,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신적 본성**을 공유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선언은 시간 안의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자의 왕적 신분과 신적 본성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즉위 선언입니다. 아들이 없는 아버지,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가능한가요? 영원 전부터 성부는 아버지이셨고 성자는 아들이셨습니다. **이 관계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 10:30)

삼위일체의 정의

웨인 그루뎀(Wayne Grudem)은 삼위일체를 세 가지 명제로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삼위이십니다(God is three persons).**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구별되는 위격(Person)이십니다. 위격은 단순한 역할이나 기능이 아닙니다. 각 위격은 고유한 존재 방식을 가지십니다.

둘째, **각 위는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Each person is fully God).** 성부만 하나님이신 것이 아닙니다.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삼등분하여 성부가 3 분의 1, 성자가 3 분의 1, 성령이 3 분의 1 이 아닙니다. 각 위격이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There is one God).**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십니다. 기독교는 유일신론입니다.

이 세 명제는 각각을 주장하기는 쉽지만, 셋을 동시에 붙잡는 것이 삼위일체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순간 이단이 됩니다.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삼위격적인 형태 이외의 어떤 다른 형태로도 존재하실 수 없다."** 이것은 삼위일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존재 방식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기를 그만두실 수 없고, 삼위일체 이전에 단일한 하나님으로 먼저 계셨다가 나중에 삼위일체가 되신 것도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밀라드 에릭슨(Millard J. Erickson)은 이것을 세 차원으로 확인합니다. **"영원히, 본질적으로, 그리고 존재적으로 삼위이신 하나님."** 영원히(eternally)는 시간의 차원에서 시작도 끝도 없이 항상 삼위이심을, 본질적으로(essentially)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삼위임을, 존재적으로(ontologically)는 삼위일체가 하나님 존재의 가장 깊은 실재임을 가리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설명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이십니다.

잘못된 유비들과 이단들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비들이 잘못되면 이단으로 이어집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이단들을 살펴봄으로써, 삼위일체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유비는 **물의 세 가지 상태**입니다. 물이 액체, 고체, 기체의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하듯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태론(Modalism)**으로 이어집니다. 양태론은 하나님이 때로는 성부로, 때로는 성자로, 때로는 성령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 세 가지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는 아버지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남편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회사 사장인 것처럼 말이지요.

이 유비는 삼위일체의 '일체'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삼위'를 잃어버린 오류입니다. 양태론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부, 성자, 성령을 각각 독립된 위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 가지 기능이나 역할로 축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기능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께 기도하시며, 성령은 성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인격이 스스로에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실제 인격적 관계**입니다.

물의 세 가지 상태라는 이 유비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성부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세 위격이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물이 동시에 액체이면서 고체이면서 기체일 수 없듯이, 양태론적 이해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부께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유비는 **계란**입니다. 계란이 껍데기와 흰자와 노른자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도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신론(Tritheism)**으로 이어집니다. 삼신론은 세 분의 다른 신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란의 껍데기, 흰자, 노른자가 각각 독립된 부분이듯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독립된 세 분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비는 양태론과 반대 방향의 오류를 범합니다. 양태론이 '일체'에만 집중하다가 삼위를 잃어버렸다면, 계란 유비는 '삼위'에만 집중하다가 일체를 잃어버립니다. 계란의 세 부분은 각각 분리될 수 있으며, 세 부분이 합쳐져야 비로소 온전한 계란이 됩니다. 이 논리를 삼위일체에 적용하면, 성부만으로는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만으로도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며, 성부, 성자, 성령이 합체되어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각각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삼등분하여 더하는 방식으로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신 6:4). 삼신론은 성경의 유일신론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주요 이단들도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이단들 가운데 **가현설(假現說, Docetism)**은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현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키려다 생긴 오류입니다. 헬레니즘 세계에 깊이 퍼져 있던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전제를 받아들인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추론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하고 불완전한 물질, 즉 인간의 육체를

실제로 취하실 수 있겠는가?" 그 결론이 가현설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실제 육체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것(도케인, δοκεῖν)'**에 불과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성육신을 부정함으로써 삼위일체론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성자가 실제로 육신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성자는 역사 안에 실제로 오신 적이 없는 것이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부활도 실제 사건이 아니게 됩니다. 요한은 바로 이 이단을 겨냥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요일 4:2). 성육신의 실재성은 삼위일체론의 핵심이며, 기독론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아리우스주의(Arianism)는 성자와 성령이 피조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자는 창조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리우스(Arius)의 유명한 말은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자의 영원하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 1:1). 이 이단을 정죄하기 위해 AD 325 년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고, 성자가 성부와 **동일한 본질(호모우시오스, ὁμοούσιος)**이심을 선언했습니다.

양자설(Adoptionism)은 예수님이 본래 피조물이었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역사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침례 양자설**입니다. 2 세기 에비온파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부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마 3:17)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는 **부활 양자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지셨다는 주장으로, 로마서 1:4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는 구절을 오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예수님이 부활로 아들이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그분이 영원부터 아들이심을 역사 안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건임을 말합니다.

두 형태 모두 예수님의 영원하신 아들 되심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오류를 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 1:1). 예수님은 어느 시점에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신 성자이시며, 그 성자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의 논리적 위험은 오늘날에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을 역사 안에 오신 육신의 예수로 이해하는 순간, 의도하지 않더라도 양자설과 유사한 구조로 기울 수 있습니다. 선택과 관련된 신학적 논쟁은 구원론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범하는 오류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신비를 해결하려다 진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해하는 삼위일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삼위일체이셔야 하는가? 12 세기 신학자 리샤르(Richard de Saint-Victor)는 사랑의 논리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가장 아름다운 통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요일 4:8). 사랑은 언제나 대상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있어야 사랑이 성립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혼자이신 분이라면, 창조 이전에는 사랑의 대상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 이전의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셨다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삼위이시라면, 창조 이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완전한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리샤르는 이타적 사랑은 둘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제 3 자가 있을 때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완전해집니다.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 더욱 풍성하게 됩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이셨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 장 1 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1)

태초부터 관계가 있었습니다. 성자(말씀)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폴 피데스(Paul Fiddes)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관계는 생명과 사랑의 운동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생명과 사랑의 운동 안에 계셨습니다.

그 사랑이 창조를 통해 피조물에게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 그 사랑에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성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요 3:16).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삼위일체의 구원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삼위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려면 먼저 삼위의 내적 생명을 보아야 합니다. 카파도키아 교부들이 발전시키고 요한 다마스쿠스(John of Damascus)가 정교화한 **페리코레시스(περιχώρησις)**는 '**서로 안에 거하다, 함께 돌다**'는 의미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의 안에 완전히 거하시며 서로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을 직접 증언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요 10:38)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요 17:21)

삼위 안에는 고립된 위격이 없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통해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령 안에서 순종하시며, 성령은 성자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성부를 드러내십니다. 이 삼위의 내적 교제가 구원 사역 안에서 우리를 향해 흘러나옵니다.

마르틴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는 삼위일체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성부는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성자는 성부의 보내심을 받아 이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 의해 보내심을 받아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의 계획이, 성자의 십자가를 통해, 성령의 적용으로 우리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삼위 하나님 전체의 일하심입니다.

도로시 세이어즈(Dorothy L. Sayers)는 문학 작품의 유비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작가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성부). 그 아이디어가 창조적 에너지를 통해 실제 글로 쓰여집니다(성자). 그 쓰인 책이 독자에게 읽혀 창조적 힘으로 작용합니다(성령). **생각에 머문 책, 쓰인 책, 읽히는 책** —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작품인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하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삼위일체의 관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의 기원이십니다**(요 14:26; 15:26). 여기서 **"기원"**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바르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적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와 성령이 성부보다 '나중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시간 이전, 영원 안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4 세기 신학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빛이 태양보다 나중이 아닌 것처럼, 성자와 성령은 성부보다 나중이 아니다."** 태양이 있는 곳에 항상 빛이 있듯이, 성부가 영원히 계신 곳에 성자와 성령이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또한 **이것은 존재의 우열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자와 성령이 성부보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 분은 **동일한 신적본질(호모우시오스, ὁμοούσιος)**을 완전하게 공유하십니다. **"기원"**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곧 **위격들 사이의 관계적 방향성**입니다. 성부는 **'주시는 방식'**으로 존재하시고, 성자는 **'받으시는 방식'**으로 존재하시되, 그 받으심이 완전하여 성부와 동등하십니다. 이것은 우열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관계 구조**입니다.

니케아 신경(325 년)은 이것을 **"빛에서 나신 빛(Light from Light)"**이라는 표현으로 고백합니다. 빛에서 나셨으되, 빛이십니다. 기원이 있으되, 열등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정통 삼위일체론이 "기원"이라는 단어에 담은 의미입니다.

이 영원한 위격의 관계는 우리를 향한 삼위의 사역 안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자는 성부를 계시하시고, 성령은 성자를 계시하십니다. 성자는 성부께 순종하시고, 성령은 성자를 조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 15:26)

성경은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기록된 책입니다. 성부의 뜻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성자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과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단순한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적입니다. **성부의 택하심, 성자의 구속, 성령의 적용** — 이 삼위 하나님의 협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삼위일체적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성자의 이름으로 성부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삼위일체적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자가 우리의 길이 되시며, 성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부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성자와 한 몸을 이루는 신비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깨달을 때,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일 1:3)

묵상을 위한 질문

- 삼위일체에 대해 오늘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내가 초대받았다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나의 신앙은 지금 의무입니까, 기쁨입니까?
- 성부의 계획, 성자의 십자가, 성령의 적용이라는 삼위일체의 구원 사역을 생각할 때, 나의 구원이 얼마나 확고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까?
-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래 관계 안에 계신 분입니다. 나의 가정, 교회, 이웃과의 관계는 그 사랑의 교제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질문 5. 성령은 누구신가?

— 삼위일체의 제 3 위격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성부와 성자는 비교적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성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고, 성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조금 다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에너지쯤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을 체험 위주로만 이해하여, 성령의 신학적 정체성보다는 성령의 특별한 현상에만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을 분명히 한 인격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증언합니다. 성령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성령을 단순한 능력으로만 이해하면 성령을 이용하려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격성을 무시하면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론을 공부하는 이유

첫째, 성령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Sinclair B. Ferguson)은 그의 책『성령(The Holy Spirit)』에서 이것을 핵심으로 강조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령을 모르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모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모르면 구원의 실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론은 기독론·구원론·삼위일체론 전체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둘째, 성령에 대한 무지는 신앙 전체를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듭니다. 제임스 패커(J. I. Packer)는『성령과 함께 걸으라(Keep in Step with the Spirit)』에서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가 생긴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인격성을 무시하고 성령을

단순한 능력이나 에너지로 축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사역을 감정적 체험이나 특별한 현상에만 집중하여 신학적 깊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패커는 이 두 오류가 모두 동일한 뿌리, 즉 성령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합니다. 성령을 바르게 알 때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신앙의 삶이 가능합니다.

셋째, 성령은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가까워지는 접촉점입니다. 성부는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분으로, 성자는 역사 안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삼위 하나님 전체의 일하심을 우리 삶 안으로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퍼거슨의 표현처럼, 성령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각인된 분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부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자의 은혜를 누립니다. 성령을 아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성령, 그 이름의 의미

성령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름의 의미부터 살펴야 합니다. 구약 히브리어에서 **성령**은 **루아흐(רוּחַ, ruach)**라고 불립니다.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바람(wind), 숨(breath), 영(spirit)입니다. 창세기 1 장 2 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할 때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운행하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라하프(רָחַף)**는 어미 새가 새끼 위에서 날개를 펄럭이며 맴돌고 보호하는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32:11 에서 독수리가 새끼 위에서 날갯짓하는 장면에 같은 어근이 사용됩니다.

루아흐는 단순히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숨(breath)**이라는 의미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욥기 33 장 4 절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루아흐가 임하는 곳에 생명이 시작됩니다. 에스겔 37 장의 마른 뼈 골짜기에 루아흐가 임할 때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장면은 이 진리를 가장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신약 헬라어에서는 **프뉴마(πνεῦμα, pneuma)**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루아흐와 마찬가지로 바람, 숨, 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복음 3 장 8 절에서 예수님은 이 이미지를 직접 사용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 3:8)

성령은 바람처럼 자유롭고, 숨처럼 생명을 주시며,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신성

성령은 성부·성자와 동등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신성은 세 가지 방향에서 확인됩니다.

먼저,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사도행전 5 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행 5:3-4)

성령을 속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성령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바울도 이 동일성을 확증합니다. 고린도전서 3 장 16 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른 것을 6 장 19-20 절에서는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과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이 완전히 같은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는 속성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은 모든 곳에 계시며(시 139:7), 모든 것을 아시고(고전 2:10-11), 영원하십니다(히 9:14). 이 세 가지 속성, 편재성·전지성·영원성은 피조물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창조에 참여하셨고(창 1:2), 생명을 주시며(요 6:63),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요 3:5-8),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롬 8:11). 예수님의 대위임령에서도 성부·성자와 나란히 하나의 이름 안에 묶이십니다(마 28:19).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후 13:13)

성령의 인격

성령은 단순한 힘이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경은 성령이 인격의 세 가지 핵심 요소, 즉 지성·감정·의지를 가지고 계심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성령은 지성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고전 2:10),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요 14:26),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요 16:13). 성령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을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조명하십니다.

성령은 감정을 가지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사실은 성령이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이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엡 4:30). 근심할 수 있는 것은 인격만이 가능합니다. 불이나 바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의지를 가지십니다. 성령은 자신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고전 12:11). 또한 성령은 가르치시고(요 14:26), 증언하시며(요 15:26), 인도하시고(롬 8:14), 말씀하시며(행 13:2), 책망하십니다(요 16:8).

이처럼 성령은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결정하시는 인격이십니다.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 14:16-17)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단어는 곁에서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 장 16 절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또 다른"**은 헬라어 **알로스(ἄλλος),** 즉 "같은 종류의 또 다른"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안에서의 성령

성령의 신성과 인격을 이해했다면, 이제 삼위일체 안에서 성령의 자리를 살펴야 합니다. 성령은 성부·성자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위격 안에서 고유한 존재 방식을 가지십니다.

앞서 질문 4 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부는 성자를 영원히 낳으시고(eternal generation),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십니다(eternal procession). 이것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적 방향성입니다. 요한복음 15 장 26 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 15:26)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오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발출(procession)** 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결과이자 표현이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는 성령을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끈(빈쿨룸 카리타티스, vinculum caritatis)"**이라 하여 삼위의 사랑을 하나로 묶으시는 분으로 표현했습니다.

앞서 삼위일체론에서 살펴본 **페리코레시스(περιχώρησις)**, 즉 삼위의 상호내주가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성부는 성자를 통해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령 안에서 순종하시며, 성령은

성자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성부를 드러내십니다. 삼위의 내적 생명은 이 완전한 상호내주 안에서 하나를 이룹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성령론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성령이 먼저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눅 1:35).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령 안에서 시작됩니다. 침례 시 성령이 임하셨고(마 3:16-17),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으며(마 4:1),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마 12:28).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도 성령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히 9:14).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롬 8:11).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충만히 드러나십니다. 성령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9)고 선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의 사역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부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가 구원을 성취하셨다면, 성령은 그 구원을 우리 각 사람의 삶 안에서 실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생과 믿음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먼저가 아니라, 성령이 먼저 우리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성령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인침과 보증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는 인(seal)이십니다. 에베소서 1:13-14 은 이것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증'**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라본(ἀρραβών)**은 거래를 보장하는 계약금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미래 기업, 즉 완전한 구원의 첫 번째 지불금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보증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성령의 인침 위에 서 있습니다.

연약함을 도우심 / 성령 안에서의 기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기서 연약함은 단순히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롬 8:26). 우리의 가장 깊은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 앞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간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카타 테온, κατὰ θεόν)** 이루어집니다(롬 8:27).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령의 간구는 단순히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는 중보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 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 강청 비유를 통해 이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이 성령을 주시는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눅 11:13).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주기도문은 성령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엡 6:18)고 명하는 이유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특별한 기도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자녀 됨의 확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 확신을 우리 안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롬 8:15-16). 이것은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실재입니다.

성령의 전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공간입니다.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6:19-20)고 선언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 전체가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보여줍니다.

영화의 현실을 누림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고후 3:18). 이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점점 쌓아가는 도덕적 진보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8 장 30 절에서 영화를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선언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된 자들입니다. 성령은 그 영화의 현실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도록 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15:5), 열매는 가지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의 본질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 흘러나오는 생명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22-23 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들은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농부가 과일나무에 과일을 매달지 않듯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성도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이 열매들이 바로 영화의 현실이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16:13), 삶의 결정과 사역의 방향에서 우리를 이끄십니다(행 13:2). 성령은 성경의 영감자이시며(딤후 3:16, 벧후 1:21), 동시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살아있게 하시는 조명자이십니다.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 살아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갈 5:25)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더 깊은 내용과 구체적인 적용은 구원론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성령과 교회

성령은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공동체인 교회 전체 안에서 일하십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 태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탄생 사건입니다(행 2 장). 성령이 임하시기 전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수천 명이 한 날에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결단이나 조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탄생한 공동체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로 묶으십니다(엡 4:3-4).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또한 성령은 각 지체에게 사역을 위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고전 12:4-11).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선교, 봉사, 섬김은 모두 성령의 일하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전 12:13)

성령과 교회의 관계, 성령의 은사와 공동체적 삶에 대해서는 교회론에서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성령론을 단순한 교리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3 위격이시며, 오늘 우리 안에 살아 계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령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퍼거슨이 말한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시는 분이시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각인된 분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부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일 1:3)

묵상을 위한 질문

- 성령에 대해 오늘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공부가 나의 성령 이해를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만들어 가십니다(롬 8:26-27). 나는 지금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 연약함을 성령께 맡기고 있습니까?
-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갈 5:25). 오늘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아직 내 힘으로 붙들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질문 6. 하나님은 무엇을 작정하셨는가?

— 영원 전부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필 내가 이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까?" "왜 그 사고가 일어난 걸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철학적 궁금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고통 한가운데서, 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마주치게 되는 질문들입니다.

작정론은 바로 이 질문들의 뿌리에 자리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와 역사에 대해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우리의 삶은 우연의 연속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가? 그 계획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겸손이 생기고, 불안이 줄어들며, 소망이 자라납니다. 작정론은 차갑고 딱딱한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여기 계셨다"**는 고백의 신학적 표현입니다.

용어의 정리

작정론을 이해하려면 먼저 서로 혼용되기 쉬운 세 가지 신학 용어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세 개념의 관계를 처음에 잘 잡아두면 이후의 내용 전체가 훨씬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작정(Decree)

작정은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즉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만물과 역사 전체에 대해 세우신 영원한 계획을 가리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이라고 정의합니다. 우주의 시작에서 역사의 마지막까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계획 전체가 작정입니다.

예정(Predestination)

예정은 작정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전체 중에서 특히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누가 구원에 이를 것인지를 자신의 주권적 은혜로 결정하셨는데, 이것이 예정입니다.

주권적이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외부의 어떤 것에도 종속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로운 결정자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능력, 도덕성, 미래의 믿음, 선행 — 이 중 어느 것도 하나님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9 장 15 절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 편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았다는 뜻입니다. 선택의 성격이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순전히 그분의 사랑과 호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대비하면 이렇습니다. **주권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은혜는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 장 4-5 절이 이 둘을 함께 보여줍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엡 1:4-5)

"그 기쁘신 뜻대로"가 핵심입니다. 선택의 근거는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 즉 그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미리 발견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 됩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사실상 인간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작정이 큰 원이라면 예정은 그 안에 포함된 작은 원입니다. 예정에 대해서는 구원론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섭리(Providence)

섭리는 성격이 다릅니다. 작정과 예정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면, 섭리는 그 계획이 시간과 역사 안에서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작정이 설계도라면, 섭리는 그 설계도를 따라 실제로 건물을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섭리에 대해서도 별도의 단원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작정(영원한 계획 전체) ⊃ 예정(구원에 관한 계획) → 섭리(역사 안에서의 실행)

하나님의 작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작정의 핵심 —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

창세기 1 장 1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세계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 장 4 절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작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만드신 후에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그 목적을 향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는 하나님의 작정을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자신의 주권적 뜻에 따라 영원 전에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으로 정의합니다. 웨인 그루뎀(Wayne Grudem) 역시 같은 맥락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것을 결정하신 영원한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작정의 네 가지 특성

마르틴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는 하나님의 작정을 네 가지 특성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그 안에서 일하십니다. "**창세 전에**"(엡 1:4), "**때가 차매**"(갈 4:4) —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 전에 세워져 시간 안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둘째, 포괄성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종류의 일과 사건들을 포함합니다. 큰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작은 일까지, 심지어 피조물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 16:33)

제비뽑기는 당시 가장 우연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피조물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동들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 동시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라면, **내 선택은 과연 진정한 자유인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인간의 진정한

자유가 어떻게 동시에 참일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 신비는 뒤에서 다루는 반론과 답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주권성과 유효성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외부의 어떤 것에도 종속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그 목적대로 이루어집니다. 주권적이시기 때문에 유효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인간의 결정도, 어떤 역사적 사건도 하나님의 작정을 무너뜨리거나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사 14:27)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사 55:11)

이사야 14 장 27 절은 하나님의 작정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소극적 확인이고, 이사야 55 장 11 절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적극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엡 1:11)

넷째, 하나님의 속성과의 일치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거룩하심, 사랑하심, 의로우심, 신실하심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에 반하는 것을 작정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모순된다고 성급히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온전한 목적은 역사의 끝에서야 비로소 충분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이면서 포괄적인 작정

벌코프는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이면서 포괄적이고 동시적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먼저 결정하시고 저것을 나중에 결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 전에 단번에 이루어진 하나의 포괄적인 결정입니다. 우리가 작정의 여러 측면을 순서대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유한한 이해 방식 때문이지, 하나님 안에서 작정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먼저"와 "나중"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나의 영원한 현재 안에서 아시고 결정하십니다.

작정과 악의 문제 — 가장 어려운 질문

이 지점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면, 세상의 악과 고통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가? 이것은 작정론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유효적 작정과 허용적 작정

개혁신학은 이 문제에서 두 가지를 신중하게 구분합니다. 하나는 **유효적 작정(Efficacious Decree)**으로, 하나님이 직접 원하시고 이루시는 창조, 구원, 섭리의 선한 사역입니다. 다른 하나는 **허용적 작정(Permissive Decree)**으로, 하나님이 피조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악행을 허용하시되, 그것을 자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의도하시거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허용된 죄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의도와 허용의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하나님을 죄의 원인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루뎀은 이 점을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직접 악을 행하시거나 악을 기뻐하신다고 나오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은 도덕적 피조물들의 자발적 행위를 통해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면서, 그것을 자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

요셉의 이야기 — 작정의 생생한 예

성경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구덩이에 던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완전히 자유로운 악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악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행위를 통해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 때에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이스라엘 가족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훗날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 45:5)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창 45:8)

형들이 보낸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의 행동은 완전히 자유로운 그들의 결정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습니다. 악한 행위의 책임은 형들에게 있고, 선한 목적의 성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작정 교리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창세 전에 작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악한 행위는 완전히 자유로운 그들의 결정이었고, 따라서 그 범죄에 대한 책임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신비롭게 공존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행 2:23)

이 한 절 안에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와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 이 둘은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악인 십자가 처형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선인 구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루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악행을 행하도록 허용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자신은 책임이 없으신지, 우리는 결국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은 신학의 나약함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의 깊이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겸손**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롬 11:33)

자주 묻는 질문들

첫 번째 질문: 모든 것이 작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노력은 무의미하지 않은가?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운명론(fatalism)**과 혼동한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운명론은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무엇을 해도 소용없다 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만이 아니라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도 함께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선택과 행동이 바로 그 수단 안에 포함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열매가 열리겠지"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게으름과 불순종에 대한 변명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노력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실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나아가 신자에게는 이것이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노력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서 2 장 12-13 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 2:12-13)

이 본문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13 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원하고, 그것을 행하는 힘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대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지 않는가?

이것은 작정 교리에 대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작정하셨다면, 우리의 선택은 진정한 선택이 아닌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차녹(Stephen Charnock)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옹호하고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부인하겠는가?"**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해야 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를 낳습니다.

그루뎀은 극작가와 등장인물의 관계를 유비로 사용합니다.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쓸 때, 햄릿의 모든 행동을 작가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안에서 햄릿은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작가의 결정과 등장인물의 자유가 모순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도 모순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가르칩니다. 이 둘은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고 함께 존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형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이 동시에 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신비라고 해서 모순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앞서 유효적 작정과 허용적 작정의 구분에서 이미 이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죄를 의도하시거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원인은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허용하시되, 그것을 자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요셉의 형들의 악한 행위가 결국 생명을 구하는 선으로 이어진 것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악인 십자가가 가장 큰 선인 구원으로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악 속에서도 선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고통도, 실패도, 슬픔도, 심지어 죄의 결과로 오는 어려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끌립니다.

작정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

작정 교리는 차갑고 딱딱한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의 삶에 세 가지 선물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선물은 겸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은혜임을 알 때 겸손해집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신뢰입니다. 내 삶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 불안과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그 자리에 계셨고 선한 목적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던 그날, 하나님은 이미 그 끝을 알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포로 상황, 절망적인 상황,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그 상황 속에서도 선하고 신실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렘 29:11)

이것이 작정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오늘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 내 삶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고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것이 나의 노력과 기도에 어떤 의미를 더해줍니까?
-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렘 29:11 의 약속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 7.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는가?

— 말씀으로 세상을 여신 하나님

창조론은 기원 질문이 아니라 존재 질문입니다

창조론을 공부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이런 질문을 떠올립니다. "우주는 몇 년 전에 생겼는가?", "하나님은 6 일 동안 정말로 창조하셨는가?", "진화론은 맞는가, 틀렸는가?" 이 질문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질문들이 창조론의 핵심은 아닙니다.

창조론이 가장 근본적으로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가? 이 질문들이야말로 우리의 삶 전체와 연결되는 물음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여러 이론들

인류는 오랫동안 **"이 세상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과 씨름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나가 아닙니다. 크게 네 가지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적 자연주의(Atheistic Naturalism)

이 입장은 우주가 신의 개입 없이 자연적 원인만으로 생겨났다고 봅니다. **빅뱅 이론**이 그 대표적인 과학적 설명입니다. 빅뱅 이론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우주배경복사 발견, 허블의 우주 팽창 관측, 원소 분포 분석 등 방대한 과학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현대 우주론의 표준 모델입니다. 약 138 억 년 전, 극도로 뜨겁고 밀도 높은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했고, 이후 물리·화학적 과정을 거쳐 별과 행성과 생명체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빅뱅 이론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 벨기에의 가톨릭 사제이자 물리학자인 조르주 르메트르(Georges Lemaître)라는 사실입니다(1927 년). 그는 우주에 시작이 있다는 과학적 발견이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성경의 고백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적 자연주의는 빅뱅 이론이라는 과학적 설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주는 자연적 원인만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따라서 창조자는 필요 없다"**는 철학적 결론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우주는 자발적으로 무(無)로부터 생겨날 수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빅뱅 이론 자체는 과학이지만, "따라서 하나님은 없다"는 결론은 과학이 아니라 철학적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무신론적 자연주의**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적으로 중요한 한계가 드러납니다. 자연과학은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빅뱅을 일으킨 최초의 물질이나 에너지는 어디서 왔는가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단순히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물질도, 에너지도, 공간도, 시간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완전한 무(無)에서 어떻게 무언가가 생겨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자 논리입니다.

호킹은 중력이 있으면 우주가 자발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그 중력은 또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이 다시 남습니다. 자연과학은 이미 존재하는 것들 사이의 관계와 과정을 설명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의 근거를 묻는 이 질문에는 원리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Leibniz)가 처음 정식화하고 하이데거(Heidegger)가 "철학의 근본 질문"이라고 부른 이 물음,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존재하는가?(Why is there something rather than nothing?)"**는 자연과학의 영역 너머를 가리킵니다.

또한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신론적 자연주의와 진화론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생명체가 자연선택과 유전적 변이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다양해졌다는 과학적 이론입니다. 진화론 자체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화론의 연구 범위 밖의 질문입니다. 리처드 도킨스처럼 진화론을 근거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과학적 주장이 아니라 무신론적 자연주의라는 철학적 세계관입니다. 이 구별을 기억하면, 뒤에서 다룰 유신진화론이 왜 가능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 이 모든 질문의 근저에 있는 물음에 단호하게 답합니다. **존재의 근거는 우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밖에서 우주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로부터의 창조(ex nihilo), 즉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불러내셨다는 고백의 핵심입니다.

범신론(Pantheism)

범신론은 우주와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입장에서는 창조란 신이 별도의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신이 자신을 펼쳐내는 과정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바다와 파도의 관계와 같습니다. 파도는 바다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바다 자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범신론에서 우주와 나무와 인간은 모두 신의 일부이거나 신의 표현입니다.

이 관점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7 세기 네덜란드의 철학자 바뤼흐 스피노자(Baruch Spinoza)는 **"신 또는 자연(Deus sive Natura)"**이라는 유명한 표현을 남겼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과 자연은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실체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힌두교의 불이론(不二論, Advaita Vedanta)** 사상도 이와 유사하게 개별 자아와 우주적 자아(브라만)가 궁극적으로 하나라고 봅니다.

오늘날의 **뉴에이지(New Age)** 사상은 이런 동양 철학과 서양 신비주의를 결합하여, "우리 안에 신성이 있다", "자연이 곧 신이다", "우주와 하나가 되라"는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영화나 대중문화에서 "우주의 에너지", "내면의 신성을 깨워라" 같은 표현들이 바로 이 범신론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이 입장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명확한 구별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지만 세상이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없이도 완전하시며, 세상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과 사랑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범신론이 이 구별을 무너뜨리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죄와 용서, 구원이라는 성경의 핵심 주제들이 모두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신론(Deism)

이신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창조 이후에는 세상 일에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봅니다. 마치 시계공이 정교한 시계를 만든 후 그것이 스스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설계하고 작동시킨 후 물러나셨으며, 이후 역사는 자연법칙에 따라 스스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신론은 18 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유럽과 미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습니다. 이성과 과학을 중시하던 계몽주의 분위기 속에서, 기적이나 계시 같은 초자연적인 요소를 불편하게 여기던 지식인들에게 이신론은 매력적인 대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되, 성경의 기적이나 기도의 응답, 섭리 같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일부가 이 입장에 가까웠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과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입니다. 제퍼슨은 성경에서 기적과 초자연적인 내용을 모두 잘라내고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만 남긴 이른바 "제퍼슨 성경"을 직접 편집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탁월한 도덕 교사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나 부활하신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프랭클린 역시 말년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몇 가지 의심이 있다"고 직접 고백했습니다.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합니다. 그는 교회를 다녔지만 성인이 된 후 평생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섭리(Providence)", "위대한 사건들의 통치자(the Ruler of Great Events)"와 같은 이신론적 표현으로 즐겨 불렀습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이들을 "기독교적 이신론자(Christian Deists)"로 분류하는데, 기독교의 언어와 문화는 유지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이신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건국의 아버지들 모두가 이신론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새뮤얼 애덤스(Samuel Adams)**나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처럼 정통 신앙을 가진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이 입장은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지만, 기도·섭리·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여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성경의 하나님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후 손을 떼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세상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마 10:29).

성경적 창조론(Biblical Creationism)

이 입장은 앞의 세 가지 입장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무신론적 자연주의**는 우주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적 창조론**은 우주에 시작이 있으며 그 시작을 있게 하신 분이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존재의 근거는 우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밖에서 우주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범신론**은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라고 말하지만, **성경적 창조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세상이 곧 하나님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하시면서도 동시에 세상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신론**은 하나님이 창조 후 물러나셨다고 말하지만, **성경적 창조론**은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에 관여하시며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적 창조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자신의 자유로운 뜻과 사랑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우연의 산물도, 어떤 필연적인 힘의 결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 한 문장으로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진화론과 창조 신앙: 대립인가, 공존인가?

창조론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으면 창조를 믿을 수 없는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선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적 이론입니다.** 과학에서 '이론(theory)'은 단순한 추측이나 가설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 검증된 설명 체계를 뜻합니다. 진화론은 150 년 이상의 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광범위한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현대 생물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학적 이론이 그렇듯, **새로운 증거와 연구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에 열려 있습니다.** 과학은 본래 그런 방식으로 발전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창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하나가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으며, 이 중 앞의 두 입장은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 번째 입장만이 진화의 과정을 하나님의 창조 방법으로 수용합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Young Earth Creationism)은 창세기 1 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이 6 일 동안 문자 그대로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지구의 나이는 약 6,000~10,000 년이라고 봅니다. 진화론은 성경의 창조 기사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창조과학(Creation Science)**이 이 입장을 대표합니다. 헨리 모리스(Henry Morris)와 존 휘트콤(John Whitcomb)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러나 이 입장은 지질학, 천문학, 물리학, 생물학 등 현대 과학의 광범위한 증거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동설을 거부했던 중세 신학이 나중에 과학적 사실 앞에서 후퇴해야 했던 것처럼, 과학적 증거와 성경 해석을 혼동할 때 생기는 위험을 이 입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지구 창조론(Old Earth Creationism)은 우주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라는 과학적 결론은 받아들이지만, 생명체의 각 종류는 하나님이 직접 별도로 창조하셨다고 봅니다. 즉 진화, 특히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변화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각 단계마다 직접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길이만 다를 뿐, 직접 창조라는 점에서는 젊은 지구

창조론과 같습니다. 창세기 1 장의 **'날'**을 긴 시대(epoch)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휴 로스(Hugh Ross)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러나 이 입장은 우주의 나이는 수용하면서도 생명의 직접 창조를 주장하기 때문에, 화석 기록과 생물학적 증거들과의 긴장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신진화론(Theistic Evolution)은 하나님이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 창조를 이루셨다고 봅니다. 진화는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분자생물물리학 박사를 받고 이후 신학으로 전향한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McGrath), 인간게놈프로젝트를 이끈 프랜시스 콜린스(Francis Collins), 케임브리지 대학교 이론물리학 교수이자 성공회 사제인 존 폴킹혼(John Polkinghorne)이 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입장은 과학적으로는 가장 열려 있지만, 신학적으로 더 무거운 질문들을 만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역사성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아담은 한 개인인가, 아니면 진화된 인류 집단을 상징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언제,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가, 타락 이전에도 죽음이 있었는가, 원죄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등 원죄론과 기독론과 구원론 전체와 연결되는 심각한 신학적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 세 입장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각각의 입장마다 해결하지 못한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경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쓰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창조의 방법과 기간을 설명하는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 누가 창조하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셨는지, 왜 창조하셨는지를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00 년 전 아우구스티누스가 제기한 세 질문이 바로 그 핵심을 가리킵니다. 이제 그 질문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세 가지 질문

5 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세기 1 장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야 했으며, 우리가 알아야 할 문제는 누가, 어떤 수단으로, 그리고 무슨 까닭에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세 질문은 1,600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창조론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 냅니다.

첫째, 누가 만들었는가? 이것은 창조의 주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인가, 아니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가? 창조주가 있다면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세계관 전체를 결정합니다.

둘째, 어떤 수단으로 만들었는가? 이것은 창조의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이 질문에서 무로부터의 창조(ex nihilo), 말씀으로 창조하심, 그리고 창조의 질서와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셋째, 무슨 까닭에 만들었는가? 이것은 창조의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존재 의미와 직결됩니다.

이제 이 세 질문을 따라가면서 성경이 창조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이 선언은 단순해 보이지만 혁명적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 우주 밖에 계시며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주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주가 아닙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이것이 범신론과 기독교 창조론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었습니다. 성부가 창조를 계획하시고, 성자를 통해 창조하시며, 성령이 운행하시며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 1:2)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1-3)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성자(말씀)를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 100:3)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근거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1. 물리적 창조: 무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 1:3)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없던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 장 2 절은 이 창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 1:2)

물질도, 에너지도, 빛도, 질서도 없는 완전한 무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다가 말씀하시자, 없던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6 일 창조의 신학적 구조

창세기 1 장의 6 일간의 창조는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3 일은 틀과 구조와 환경을 만드시고, 다음 3 일은 그 틀 안을 채우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날	틀(구조)	날	내용(채움)
첫째 날	빛	넷째 날	해, 달, 별
둘째 날	궁창과 물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셋째 날	마른 땅과 식물	여섯째 날	지상 동물과 인간

이 구조는 하나님이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변화시키시는 창조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창조의 정점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Imago Dei)**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 1:26-27)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론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것은 다음 강의인 인간론에서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창조의 기간

창세기 1 장의 **"날(욤, יוֹם)"**이 문자 그대로 24 시간인가, 아니면 긴 시간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욤"**은 문맥에 따라 **날, 시간, 삶,**

오늘, 나이, 영원히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오랫동안 신학자들과 성경 학자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 왔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시대 이론(Day-Age Theory)입니다. 창세기 1 장의 각각의 날을 문자 그대로의 하루가 아니라 수백만 년 혹은 수십억 년에 해당하는 긴 시대(age)로 보는 견해입니다. 천문학자이자 신학자인 휴 로스(Hugh Ross)가 대표적으로 이 입장을 지지합니다. 이 견해는 우주의 나이를 수십억 년으로 보는 현대 과학과 조화를 이루려는 시도이며, 시편 90 편 4 절(**"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과 베드로후서 3 장 8 절(**"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을 그 근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간격 이론(Gap Theory)입니다. 창세기 1 장 1 절과 2 절 사이에 아주 오랜 시간의 간격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즉,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계(1 절)가 어떤 이유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2 절)가 되었고, 그 이후 6 일간의 재창조 혹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지질학적 증거로 나타나는 긴 지구 역사를 성경과 조화시키려는 시도이지만, 성경 본문이 이 간격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문자적 24 시간 견해(Literal 24-Hour View)입니다. 창세기 1 장의 날을 정확히 24 시간의 하루로, 창조 기간을 문자 그대로 6 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반복적인 표현이 하루를 가리키며, 출애굽기 20 장 11 절에서 안식일의 근거로 창조의 6 일을 언급하는 것이 이 견해의 주요 근거입니다. 이 견해는 젊은 지구 창조론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중시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진영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해, 달, 별이 넷째 날에야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첫 사흘의 "저녁과 아침"을 태양 기준의 24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견해들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겸손입니다.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진지하게 논의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이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질문임을 말해 줍니다. 창조의 기간은 구원의 진리와 직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창조가 선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 장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창조

하나님은 인간과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천사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는 피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계 5:11-12),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며(히 1:14), 성도들을 섬기고 보호합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로(눅 1:19, 26),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천사장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유 1:9, 계 12:7).

타락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이들은 원래 선한 천사였으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욥기의 사탄을 보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욥에게 손댈 수 없었습니다. 사탄의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2. 창조의 신학적 의미: 혼돈에서 질서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런데 성경이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물리적 세계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전부일까요? 다니엘 밀리오리(Daniel Migliore)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해, 그분의 말씀을 위해 창조하셨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빛이 없습니다. 또한 **피조물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존재합니다.** 창조 세계의 궁극적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골 1:16). 예레미야는 바로 이 통찰을 창세기 1 장의 언어를 그대로 빌려와서 놀라운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며 그들은 어리석은 자식이라 그들에게 지각이 없으며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러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렘 4:22-23)

예레미야가 묘사하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는 상태**는 천지창조 이전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그것이 곧 혼돈이며 공허이며 흑암입니다. 창세기 1 장의 언어가 단순한 물리적 묘사가 아니라 신학적 선언이었음을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통찰을 복음서의 첫 장에서 더욱 깊이 전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 1:1-5)

요한이 "태초에"로 시작하는 것은 창세기 1 장 1 절을 의도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창조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천지창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창조는 새 창조를 향한 예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 두 창조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후 4:6)

창조에서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십니다. 창조의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 세계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과 생명과 빛을 주시는 것, 이것이 창조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로 완성됩니다.

왜 창조하셨는가? —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의 행위로서입니다. 이 둘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자기 과시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이 자기 영광을 추구할 때, 그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계 4:1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는 동시에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그 영광을 받는 우리에게도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복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는 가장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창조는 또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창조는 그 사랑을 피조물과 나누시려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을 나누시고자 창조하셨습니다.

안식과 새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안식으로 완성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창 2:1-3)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피곤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조가 완성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드러났고, 하나님은 그 충만한 생명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 생명의 안식에 우리도 초대되었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단순히 규칙이 아닙니다. 창조의 완성을 기억하고, 창조자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초대입니다. 그런데 이 쉼은 단순한 육신의 휴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창조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쉼입니다(히 4:9-10).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그 아름다운 창조가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창조 본래의 선함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창조는 새 창조를 향해 나아갑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계 21:1-5)

그 새 창조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창조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새 창조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미 시작된 새 창조 안에서, 아직 오지 않은 완성된 새 창조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 창조에 대해 오늘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 나는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셔서 만드셨다는 것을 실제로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나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시 100:3)라는 선언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떤 순간에 가장 깊이 느낍니까?

-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시려고 나를 창조하셨다면, 지금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고린도후서 5 장 17 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새 창조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질문 8.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

—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신론을 넘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물러나셨을까요? 시계를 만들고 나면 시계가 혼자 돌아가듯, 하나님도 우주를 만드신 후 손을 떼셨을까요? 이것이 이신론(Deism)의 주장입니다. 이신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후에는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세상 안에서, 역사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섭리론(Doctrine of Providence)**이 말하는 것입니다.

섭리의 정의

섭리란 창조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봄과 간섭입니다.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는 이를 "창조주가 모든 그의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활동하시며, 만물을 그들의 지정된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신적 에너지의 지속적인 실행"이라고 정의합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일회적인 개입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활동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세상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시 103:19)

마르틴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섭리의 세 요소

섭리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보존(Preservation), 동시작용(Concurrence), 통치(Government)입니다. 보존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동시작용은 그 존재의 활동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가를, 통치는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요소 — 보존 (Preservation)

보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만물은 존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벌코프는 보존을 "하나님이 그가 창조하신 만물들과 더불어 그가 그것들에게 부여하신 특성들과 능력들을 함께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 1:17)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히 1:3)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는 표현은 우주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한 순간이라도 붙드시는 것을 멈추신다면, 우주 전체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 자연이 질서 있게 운행하는 것 —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섭리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관심이 있으신가? 절대자가 인간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답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외로우셨고,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5-16)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닙니다. 그분이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 — 동시작용 (Concurrence)

동시작용은 섭리론에서 가장 깊고 신비로운 요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의 활동 안에서, 피조물의 활동을 통해 동시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과 인간의 행동이 별개의 두 궤도 위에서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 안에서 함께 작용합니다.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시작용은 이차 원인들이 스스로 활동하는 이유입니다. 이차 원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유지되면서, 자신들에게 고유하고 자연스러운 힘으로 일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자유와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수록 우리의 활동은 더욱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벌코프는 이것을 "미리 제정된 작용 법칙에 따라 피조물을 행동하게 하는 신적 능력의 작용"이라고 정의합니다. 조용수는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며,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같은 사건 안에서 동시에 완전히 유효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요셉의 이야기로 살펴보겠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그들의 자유로운 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 45:5)

형들의 행동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막 14:21).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 동시에 유효합니다.

이 때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섭리에 따른 것이라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동시작용의 교리는 정확히 이 질문에 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자유와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신인협동설(synergism)**, 즉 하나님과 인간이 힘을 합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 1 원인(primary cause)**이시고 **인간은 제 2 원인(secondary cause)**으로서, 인간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요소 — 통치 (Government)

통치는 하나님이 만물을 그 목적을 향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통치를 "하나님의 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물을 분명한 목표로 향하여 통치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엡 1:11)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계 19:6)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는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국이 흥하고 망하는 것, 민족들이 일어나고 쓰러지는 것, 개인의 삶이 펼쳐지는 것 —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통치와 관련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 하나님과 악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의 서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고통도, 실패도, 슬픔도,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끌립니다.

섭리의 목적 —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삶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역사는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 섭리의 목적, 구원의 목적 —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엡 1:4-6)

섭리를 믿는 삶은 기도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조용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없는 섭리 신앙은 없으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없는 기도는 없다."** 섭리를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섭리를 믿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 26:42)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섭리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섭리를 믿는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합 3:17-18)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섭리 신앙의 열매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 섭리에 대해 오늘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 내 삶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고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나의 노력과 기도에 어떤 의미를 더해줍니까?
-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나가며 —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살펴보았고, 삼위일체와 성령론을 다루었으며, 작정론과 창조론과 섭리론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많은 내용을 다루었지만, 결국 하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르틴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사랑이시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시고 선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 삼위일체로 영원 전부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신 하나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역사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에베소서 1 장 4-6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엡 1:4-6)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광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 배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섭리 안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로 이어질 때, 신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